

5/10/20

설교 제목: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은 아브람

전하는 아: 김순배 목사

말씀: 창세기 12 장 1-9 절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창 12:8) 거기서 베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본장을 기점으로 창세기는 그동안의 창조 시대를 접고 새로운 족장 시대를 엽니다.

1장부터 바로 앞장인 11장까지는 천지 창조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기전까지 수 천년의 인류 역사를 축약하여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부터는 구속사의 주역으로 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과정을 아브라함에서 요셉에 이르기까지 족장들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장에서부터 23 장까지 장장 12 장을 아브라함에 할애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부터 택한 백성의 조상이 되기까지의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택한 백성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언약을 주시는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브람의 나이 75 세였습니다.

(창 1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하란에 있는 아브람을 직접 찾아 오셔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서 한 말로 비추어 보아 아브람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찾아오셔서 이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브람이 아버지 데라를 설득해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버지 데라가 도중에 마음을 바꿔 하란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데라가 죽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람에게 나타나 본격적으로 아브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두 가지 방식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이나 역사를 통해서 누구나가 당신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특별 계시는 아브람의 경우와 같이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브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기는 절대 신앙을 갖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란은 갈대아 우르처럼 하나님과 다른 신들 특히 달 신을 함께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유일신으로 섬기지 않았고 이방 신들과 혼합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와 그의 친척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람이 그곳에 계속 머물러 산다면 그들의 전통과 풍습으로부터 완전히 떠나기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으로 하여금 하란을 떠나게 하여 경건하지 않은 친척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그를 분리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믿는 우리를 향해 당신이 거룩한 것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거룩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분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하여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이 좋다고 이도 저도 서로 눈감아 주며 포용하고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룩한 삶이 아닙니다.

둘째는 아브람으로 하여금 안정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사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데라는 아브람과 사래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마음을 바꿔 가나안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데라가 왜 하란에 머물렀겠습니까?

하란이 자연 환경이나 생활 풍속 등 여러 면에서 살기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데라는 거기서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란은 자연 환경도 좋았고 갈대아 우르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생계를 꾸렸던 데라에게 살기 안성맞춤이었던 곳이었습니니다.

실제로 데라는 이곳에 살면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으로 하여금 풍요와 안정을 가져다 주는 땅 하란을 떠나게 하십니다.

아브람이 세상의 환경이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아브람이 마치 가야할 땅이 어디인지 몰랐던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만 앞장에서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한 것으로 보아 아브람은 이미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이 가나안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란을 떠나라는 명을 받고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종들을 데리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하신 후 언약을 주십니다.

(창 12: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 12: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이 복들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3 장 15 절 여자의 후손 언약을 통해 암시해 왔던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 언약을 통해서 비로소 진전 발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주신 것과 같이 조건이 없는 일방적인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받는 쪽에서 어떤 행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행위 언약은 조건부 언약입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내가 이것을 해주겠다는 언약으로 쌍방의 행위가 요구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맺은 언약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태초에 하늘에서 행위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땅에 사람으로 내려가서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로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행 조건을 이행한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우편에 앉히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일방적으로 아브람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당시 아브람은 75 세나 되었고 아내 사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째, 아브람으로 하여금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람이 복 그 자체가 되어 그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그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그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를 통해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 22: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갈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 22: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의 복을 얻은 것은 아브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아브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아내 사래와 조카 롯 그리고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숭배의 삶을 청산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드디어 아브람 일행이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창 12: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창 12: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함의 후손 가나안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라도 이땅은 본래 하나님이 셈의 후손 아브람을 위해 예정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 땅을 아브람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약속을 받은 아브람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냄으로 화답했습니다.

(창 12: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람은 그곳에서 벧엘 동편 산으로 거처를 옮겼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 12:8)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 12: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브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 데라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했고 그후 하나님과 함께 섬기던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아브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데라와 달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브람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았고 손에 잡히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대로 받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풍요와 안정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금을 얻고 나서 은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금을 얻을 줄 믿고 은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람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에 복의 근원으로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 언약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믿고 의지하던 안정된 세상 삶에서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떠나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안정이 우리를 유혹하지만 거기에는 복 곧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불안하고 불확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복 곧 구원과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안정보다는 구원과 영생이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세상을 떠나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